

“날치기 예산 수정하라” 對與 총공세

민주, 결의안 국회 제출... 당·원내 지도부 사퇴 촉구도

손학규, 추경안 편성 요구하며 장외투쟁 계속

민주당은 13일 새해 예산안 및 정점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에 대해 ‘예산안 수정’과 ‘당·원내지도부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가며 대어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다섯째 서울광장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서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예산안 날치기 무효 국민 결의대회’, 촛불집회를 잇따라 열고 장외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동시에 이날 국회에 ‘예산안 날치기 의결 무효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데 이어 이만주 UAE(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 철회 결의안과 4대강 주변 개발법안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정점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연이어 제출하기로 하는 등 원내와 원내에서 투트랙으로 대어 투쟁을 강화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수정 및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늘 예정된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보류하고 예산을 다시 짜서 국회로 다시 보내라”며 “절차상 문제가 되면 추경안을 빨리 만들어서라도 국회로 다시 보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단 한 시간 만에 예산안을 날치기하는 정권이면 추경안은 사흘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나 임기 3년간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는 전과 3범의 두목이 누구인지 내가 말 안 해도 이해할 것”이라며 “전과 3범의 두목을 체포하는데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 “자기예산을 챙겨 지역구에서 따뜻하게 지낸다고 한다”며 “야 5당이 면담을 촉구했다”며 “서울 올라가 봐야, 국회 가봐야 좋은 일 없으니 안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올라오지 말고 사퇴서만 보내달라”고 비난했다.

전정배 최고위원은 “고홍길의 사퇴소는 조폭영화 흥내 내기, 보스의 죄를 혼자 뒤집어쓰겠다는 팔마니의

총성영화”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감독을 맡은 이 대통령이 사과하고 조감독을 맡은 박희태, 안상수, 김무성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안에서 “야당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채 날치기 처리된 새해 예산안 예산 절차상으로도 원천무효”라며 “필수적 민생예산들이 대거 누락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만을 위한 예산안 만큼 국회에서 수정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결의안과 함께 제출한 자체 수정 예산안은 4대강 사업비와 이른바 형편예산으로 불리는 여러 실제

들의 지역민원 예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총 3조1000억원을 삭감해 이를 서민·복지 등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항목은 친환경 무상급식 1조원과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장학금 2500억원을 포함한 민생 예산 2조1000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4000억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2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일단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을수록 다른 야당과의 연대로 앞으로 한달 넘게 이어질 장외투쟁의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고 이 여세를 몰아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지지여론을 결합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예산안 날치기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간이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급증”

장병완 “한국장학재단채권 등 3건 누락” 지적

지난 8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등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을 누락시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의 대출이자부담이 연간 60억원, 4년간 24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면서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누락됐다고 지적한 국가보증동의안은 ‘2011년 발행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2011년 발행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1년 만기 예

보채상환기금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으로 통상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예산확정과 함께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예산 통과일에 함께 처리해 왔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예산안 통과 시에 (보증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국가보증 없는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대출 학생들의 부담을 추정할 결과 연간

60억원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대출상황까지 최소기간 4년을 고려하면 최소 240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구조조정기금채권의 경우 국가보증이 늦어지게 되어 현재와 같은 낮은 금리에서의 채권발행행위를 상실함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또한 예산보다 부실이 심한 저축은행 PF 등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클린화작업의 지연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가능 금액의 감소 등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에 너무 끌려다니는게 문제”

홍준표·이한구 등 비주류, 靑·안상수 대표 비판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날치기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한나라당 비주류에서 청와대와 안상수 대표 체제를 겨냥하며 비판에 나서는 등 여당 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를 회상하며 안상수 대표 체제를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월8일 본회의장의 몸싸움 보면서 나는 96년 12월25일 노동법 기습처리를 생각했다”며 “당시 우리는 승리했다고 25일 아침에 (여의도) 양지탕에 가서 거사를 축하하고 축배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YS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당이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일각의 지적”이라며 “당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독자성을 잃고 끌려다니는 않는 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야당이 청와대를 몰고 가는 시점에 당청회동을 해서 고의장이 사퇴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나라당의 지지는 청와대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온다. 총선은 당이 치르는 것이지만 청와대가 치르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당 서민특위에서 요청한 예산 5조6000억 정도가 별도로 반영이 됐는데, 서민예산을 삭감하고 실제 지역구에 SOC 예산은 증액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정부는 쪽지예산으로 심사 없이 증액된 소위 실제 지역구의 예산이 있다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유보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3선 중진이며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냈던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예산안 처리를 고지 점령하는 식으로 처리한 것, 실제 예산은 늘리고 서

민 예산은 빠뜨린 것이 국민 여론이 나빠진 핵심 문제라던 고 의장의 사퇴는 어색하고 엉뚱하다”며 “너무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의원들 생각이 지금 많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실세들이) 출선수법하고 회생해야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얘기했으면 선공후사(先公後私)를 해야 하는데 이번 상황은 선사후공의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계의 서병수 최고위원은 “일반 의원들의 불명성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쪽지를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위원에게 건넸지만 계수소위 위원들이 (실세들의 예산 등) 큰 것만 챙기면서 이 같은 상황이 생긴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템플스테이 예산 거부”

조계종, MB정권과 전면전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을 본격화했다.

조계종은 또 “국가에 제공하고 있는 불교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찰 관련 규제를 백제하고 ▲소중함 성보(聖寶)를 박물관 지하 유물실에 방치해 놓고 있는 국립박물관의 불교문화재 반환을 추진하며 ▲신규 발굴 문화재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소유권 주장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대변인인 홍두부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종단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더 이상의 템플스테이 예산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 서민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책무를 포기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존중할 수 없다. 이들과는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언 배경에 대해 원담스님은 “템플스테이 예산이 깎였기 때문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실패를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등이 삭감되는 등 우리 사회 서민과 미래를 위한 예산이 모두 사라졌다”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박람회 예산 삭둑

여주시민들 뿔 났다

여주시민들이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크게 미흡한데 대해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여수시새마을회관에서 ‘세계박람회 예산 미편성에 따른 여수시 민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시가 신청한 박람회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성공적인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여수시가 시사업으로 박람회장 진입도 로망 구축, 국가사업으로 여수공항 활주도 연장하고 이순신대교 사업비 등 모두 285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통과된 예산은 단 510억원에 불과했다”며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여수박람회조직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박람회 실패로 인한 국제적 망신을 사느니 차라리 박람회 개최 반납운동도 불사하겠다”며 “항후 상경해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 당사 등 항의방문 투쟁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홍석 여수시장은 국회의 여수박람회 예산심의와 관련,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시가 요구한 박람회 예산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돼 역장이 무너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가정에서 노래방, 영화, 음악상상, 찬송가까지 부르는 즐거움, 보는 감동까지 느낌이 다르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들어있고 초등학교 동요도 수록했다. DVD 플레이어 기능이 있어 고화질 디지털 영화 감상과 음악 감상도 가능하여 가정과 업소용 모두 만능 제품이다. ▶효도선물 1위 금영 노래방이 제품은 노년에 쓸쓸한 부모님 효도 선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다. 연말 연시 가족모임이나 생일파티 등에 안성맞춤이다. 해외 교포 선물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정품아이크 2개, 대형 리모컨, 노래책자 제공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대히트 오래~오래~ 신상품 룽~링

남자의 발기능력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소하고, 빠르고, 힘이 없고, 남성의 3대 고민은 오래~오래~ 룽~링으로 개선하자. 자동으로 흔들려 주고 떨어뜨려주는 룽~링은 소프트하고 무게감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위생적으로 탁월하여 여성으로부터도 호감을 받습니다.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소풍닷컴 (주)평화의섬 제주여행사

크루즈투어(목포, 녹동출발) 제주도 여행 1박 2일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제주관광)

<p>목포출발 2박 3일 89,000원</p> <p>★일정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 출발-제주항도착 및 직원미팅 2일째 : 오설록차유지엄경유-제주유리의성-서커스월드-석부작테마파크-중식-유람선(울선)-제주올레길 7코스 맛보기(1시간)-천지연폭포 3일째 : 삼나무숲길경유-코끼리랜드(울선)-성음민속마을-중식-일출랜드-광치기해안가-부두</p> <p>★포함사항 : 선박료, 숙박료, 조.중.석식 2회, 입장료, 차량료 ★불포함사항 : 읍선코스, 기사, 가이드 수고비</p>	<p>녹동(고흥)출발 2박 3일 89,000원</p> <p>★일정 1일째 : 녹동연안부두 출발-제주항도착 및 직원미팅 2일째 : 오설록차유지엄경유-제주유리의성-서커스월드-석부작테마파크-중식-유람선(울선)-제주올레길 7코스 맛보기(1시간)-천지연폭포 3일째 : 삼나무숲길경유-코끼리랜드(울선)-성음민속마을-중식-일출랜드-광치기해안가-부두</p> <p>★포함사항 : 선박료, 숙박료, 조.중.석식 2회, 입장료, 차량료 ★불포함사항 : 읍선코스, 기사, 가이드 수고비</p>
---	--

※ 1일 한라산등반 + 1일 제주관광 99,000원

호텔 | 팬션 | 렌트카 | 제주바편 예약가능

전화 064-745-0963 (주)평화의섬제주 www.esopung.com

씨월드고속훼리 남해고속훼리